

29. 최초의 사액서원 상소(49세)

조선시대에서는 상피제도가 있어 가까운 친인척끼리는 같은 지역에서 근무할 수 없었다. 형 이해가 충청도 관찰사로 부임하게 되어 퇴계는 경상도 풍기로 옮기게 된다.



풍기란 곳은
우리나라 최초로
세워진 백운동서원이
있는 곳 아닌가.



중종 38년(1543년)
선배 군수로 부임한
주세붕 선배님이
세우셨지.



내가 이곳에 부임할 줄 누가
알았으랴. 이건 무슨 기연이고
영광이란 말인가.

신임 사또님,
먼길 오시느라
고생 많으셨습니다.



퇴계는 부임하자마자 서원 담당 유생에게 편지를 쓰는데,

춥지는 아니한가?



유생들이 머무는 기숙사를 당장 고쳐 춥지 않게 하라.

카 지금껏 추워서 고드름똥만 썼어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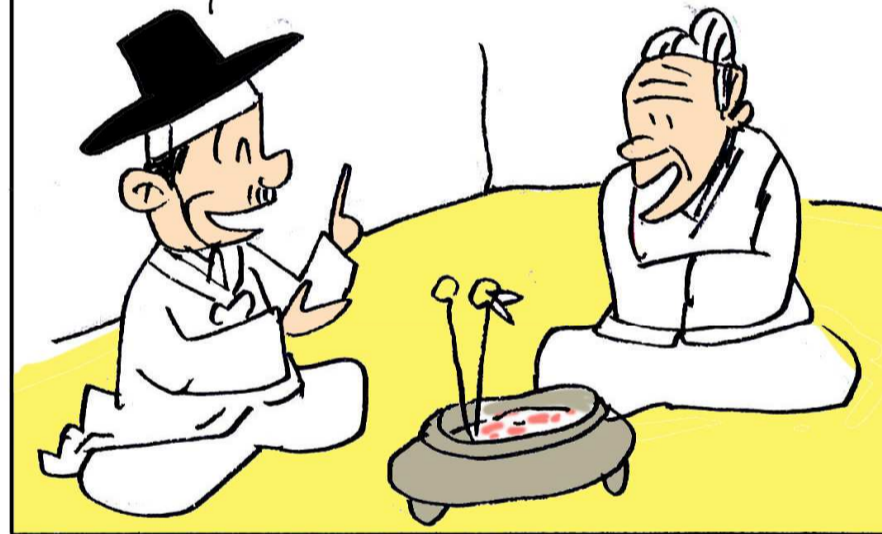


내가 해봐서 알지, 추위에 떨면서는 공부가 안돼요 암.



신관사또가 학생들 기숙사부터 고치라고 했대요 글썸.

그러다가 과거 합격율이 전국에서 최고되는 거 아냐!



우리 아들이 과거에 통과만 한다면야 뭐가 아까우랴!



그게 뭔가?

약소합니다만 정성이니 받아주십시오.



출출하실 때 한잔 쭈욱 들이키시라고
집에서 직접 담근 가양주와 안주감으로
꼭꼬 한마립니다요.

꼭꼬댁!

다투어 사람들이 술과 안주를 들고 찾아왔지만

암 우리 아들 공부시켜
출세시키는데 뭐가 아깝나.

그러게

꼭꼬!

퇴계는 모두 돌려 보냈다.

이번 군수님은
참 이상하시지.

아닐세. 모처럼
제대로 된 분이
오신걸세.

깡깡!!

웁니까,
그게?

대나무도
모릅니까?

그걸 왜?

신관사또께서
관아로 옮겨
심으셨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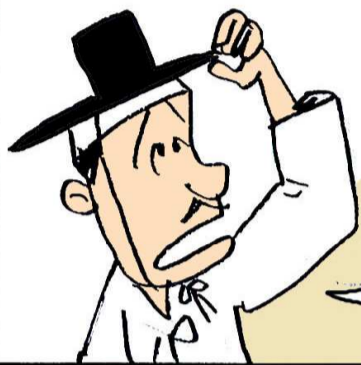
하필 왜 대나무를?

무식하시긴..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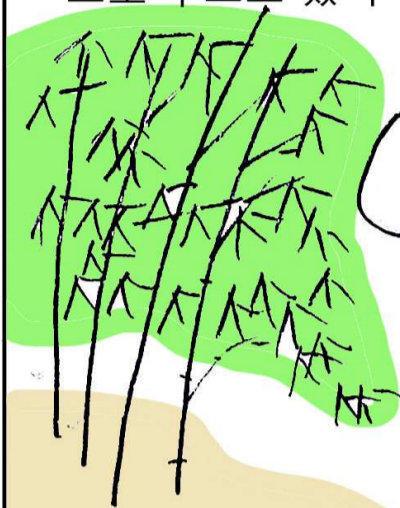
대나무가 매난국죽
사군자 가운데 하나로
쭉쭉 뻗은 것이 선비의
절개를 뜻하는 거랍니다!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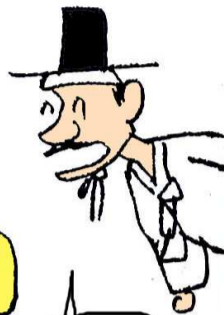
그런 깊은 뜻이
있었구려. 내가
원체 무식해서...



담양 사람들은 지금까지 이 나무를 “선생죽”
으로 부르고 있다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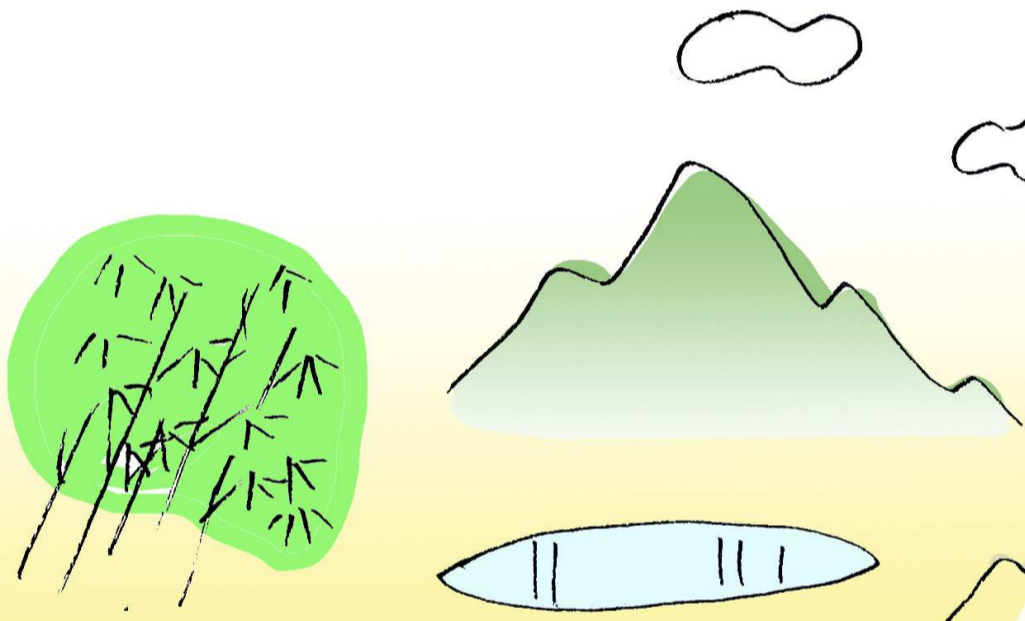


선생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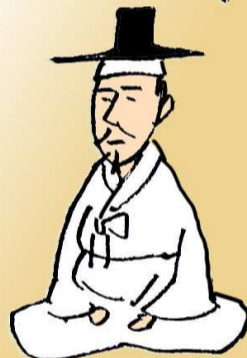


퇴계
선생죽

백운동은 풍기의 북쪽 소백산 아래의 죽계에 있는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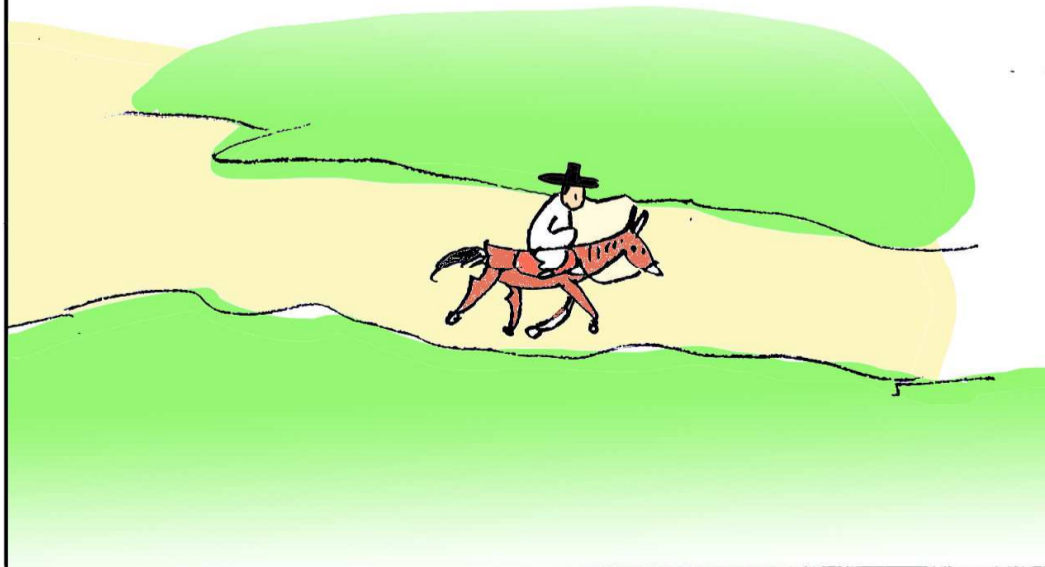
난 퇴계인데
이곳은
죽계로구나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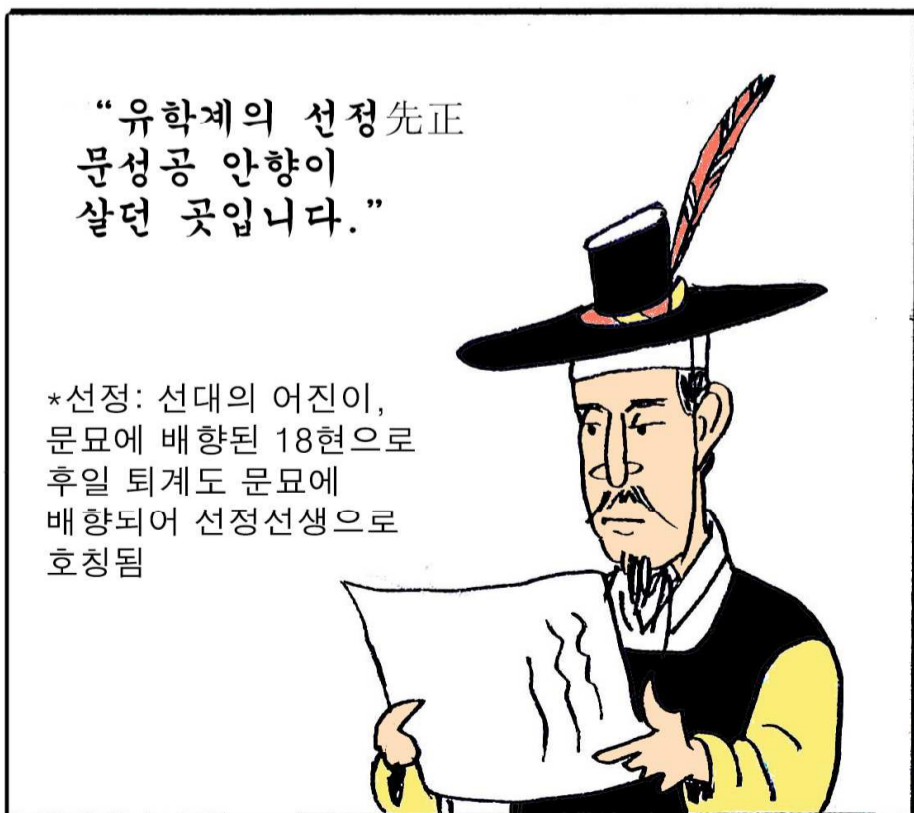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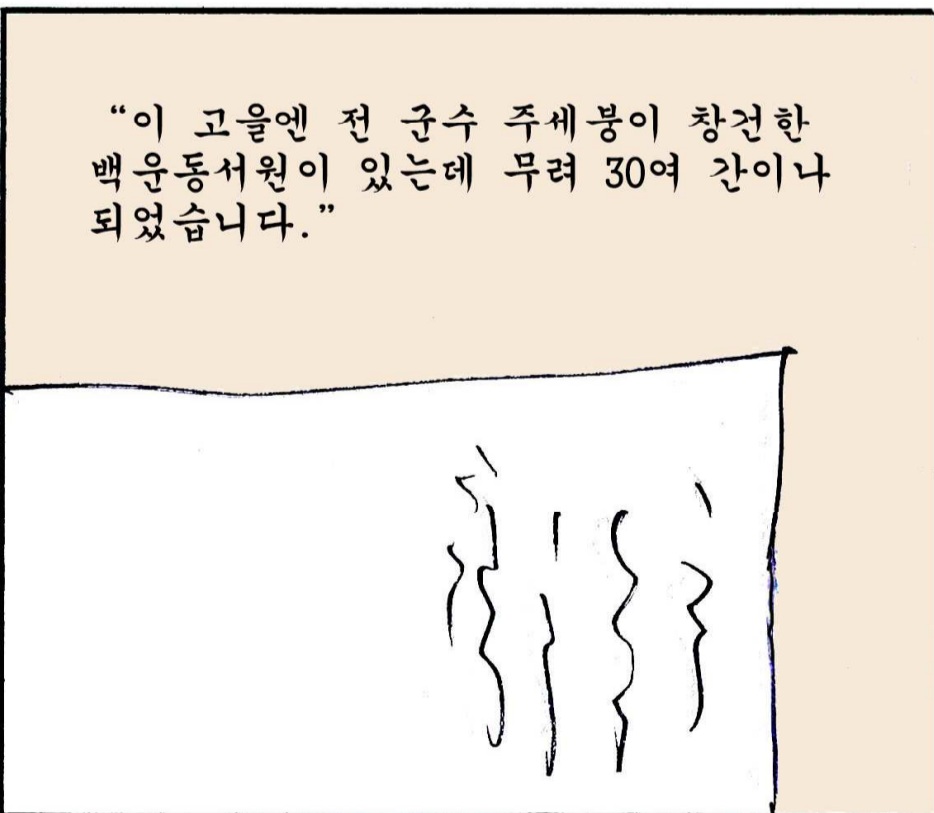
고려때 문성공 안향이 살던 곳이다.



조선시대로 넘어오며 주세붕이 풍기군수로
부임하는데







송나라에 와서 유학이 성하고 곳곳에 서원이 증설 되었으며,



오랑캐인 원나라가 중국을 접수했을 때도 서원은 세웠고,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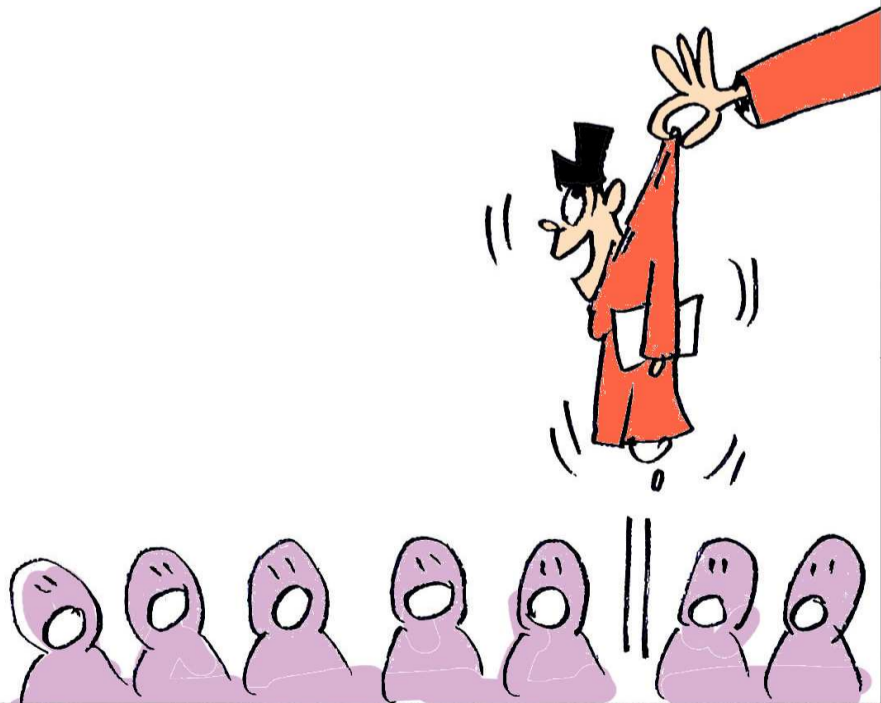
명나라 때는 모두 3백여 곳에 서원이 있다고 했습니다.



선비의 학문은 국학이나 향교보다 서원에서 득세하며



나라에서 인재를 구함은 바로 이 서원이니



송나라 태종은 편액을 손수 써서 내려 이를 영광스럽게 한 것이니 이른바 사액서원입니다.



賜額書院

일이 임금의 명령을 안거치면 영구히 전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.



곧 임금에 아뢰어 송나라 고사에 의거하여 서적을 내려 주시고



편액을 써서 내려 주시고 모범있는 군수에게 책임을 맡기시면



서원은 가히 한 나라의 학교가 될 것입니다.



이렇게 하면 왕의 덕치가 이루어 질 것이니



구구한 소원을 이기지 못하여 삼가 죽기를 무릅쓰고 글을 지어 올립니다.



백성이 마땅히 내야 할 것은 더하거나 빼지 않았다.

내가 낼 것만
딱 내니 이렇게
좋을 수가...



원칙에 벗어나게 표창하는 일도 없었다.

암, 쓸데없이
강통훈장만 남발하면
값이 떨어져요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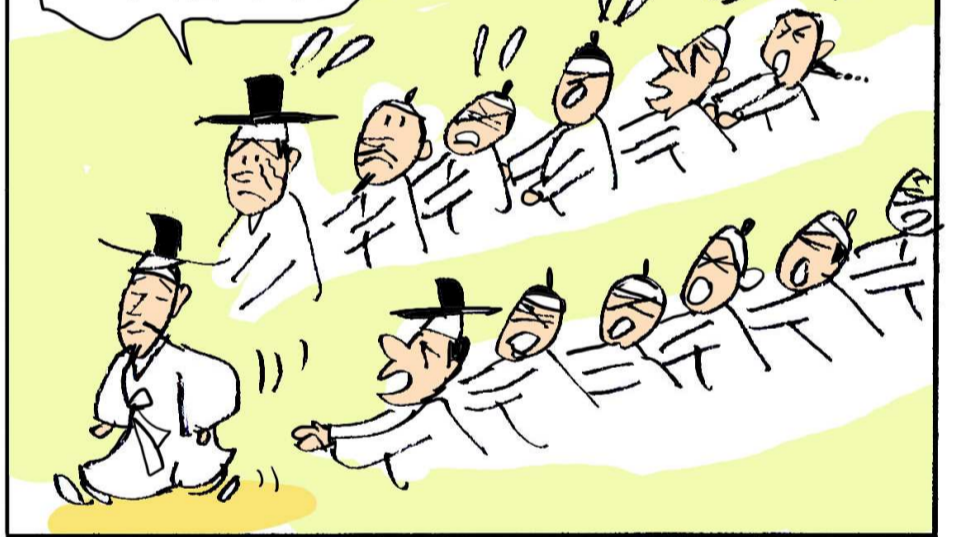
백성을 대하기를 정성과 믿음으로 하니
그들이 거짓을 저지르지 못하였다.

사또께서 잘해주시는데
거짓을 하면 그게 어디
사람인가?



퇴계가 떠나자 그 은혜를 사모하여 길을 막고
우는 사람이 많았다.

사또, 우릴 버리고
가시옵니까?



행리는 맑은 바람처럼 산뜻하여 한 점 얼룩도
없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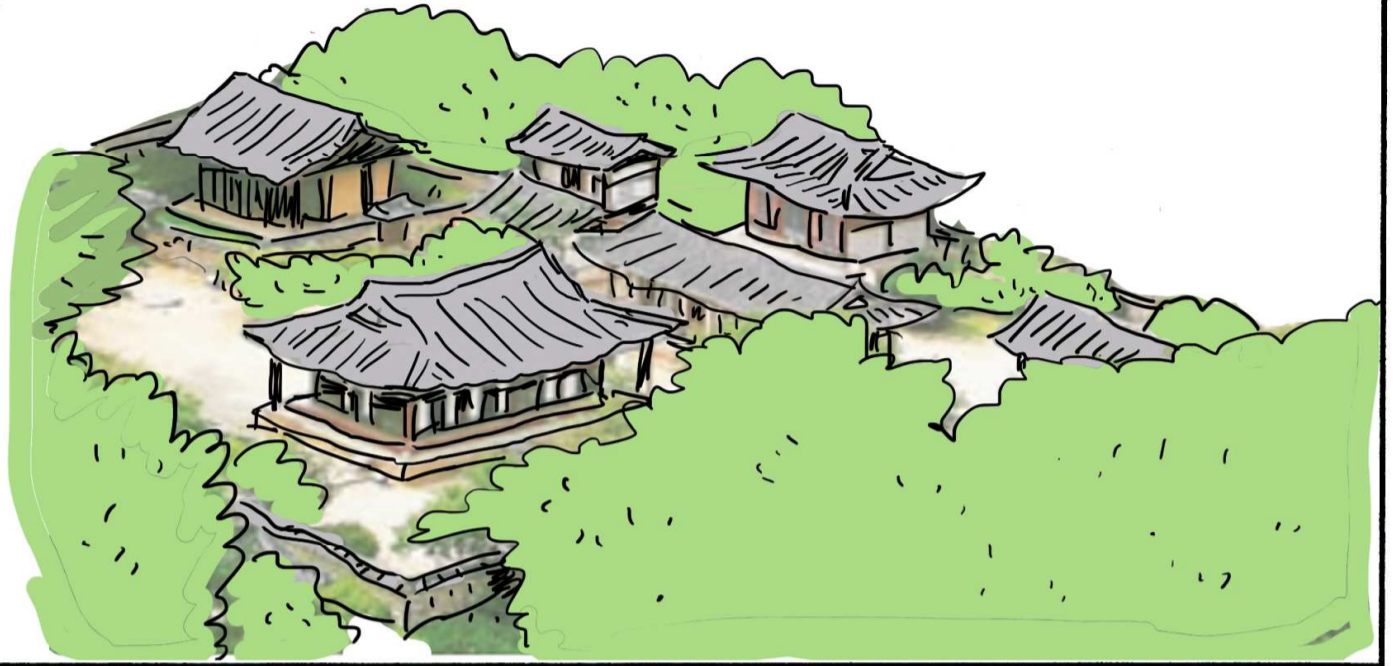
전임 군수의
행정을 보면
오류가 하나도
안보인다이,...



살아있는 모범이다.
이런건 바로바로
배워야 해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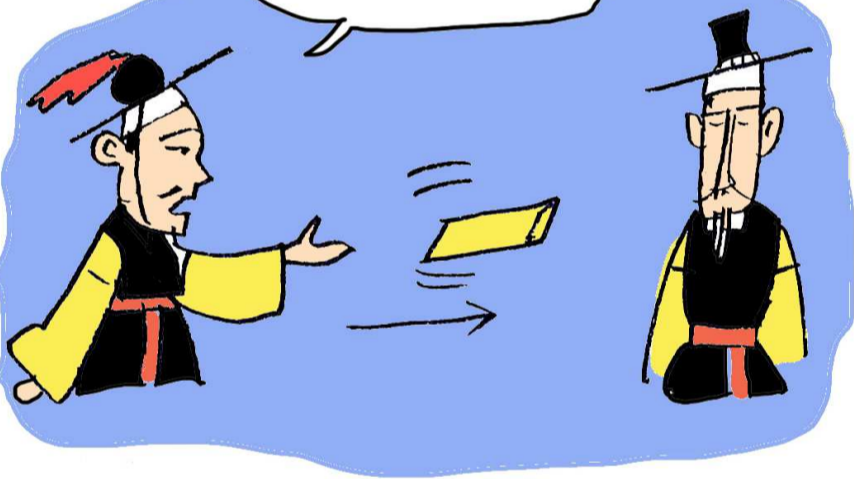


소수서원은 1543년 풍기군수 주세붕(1495~1554)이 건립하고 퇴계 이황이 1549년 서원 운영을 위해....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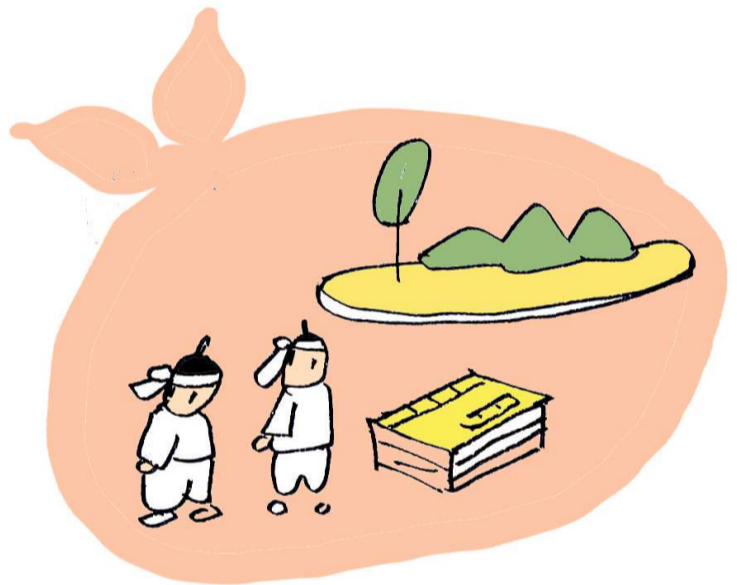


경상감사 심통원에 편지를 써서

이건 꼭 지원해 주셔야 합니다.



조정에서 서원의 편액, 토지, 책, 노비 등을 하사하도록 건의하니...



1550년 명종이 친필액자를 하사하시어 최초의 사액서원이 되었다.

